

수해현장에 전국 '사랑의 밥차'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설

익산시, 22일 전북도와 전주시 · 26일 자매도시 경주 · 29일 부산서 밥차 지원

익산 수해현장에 전국에서 출동한 사랑의 밥차들이 수해 복구에 나선 장병 등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책임진다.

시는 전주, 전북도를 비롯해 자매도시 경주, 부산 등에서 지원한 사랑의 밥차와 함께 수해현 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국군장병 등에게 중식 도시락 1000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매도시 경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익산을 방문해 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정성껏 도시락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자매도시 익산의 수해 소식을 듣고 앞서 1만5천개의 생수지원에 이어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자 사랑의 밥차를 준비해 중식 제공에 나서 그 의미를 더했다.

오는 29일부터 31일에는 부산광역시 삼광사에서 2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익산을 찾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해 (주)유담에서 2천만원과 LH주택공사에서 1백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이들 호우피해 긴급 '사랑의 밥차'들은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주도하는 망성면 내비위성탑에 집결해 도시락을 마련 중이다.

한편 시는 이곳에서 지난 22일부터 전주시 연탄은행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준 밥차를 포함해 총 3대를 운영해 하루 1000개의 도시락을 만들었다.

전주시 연탄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익산 수해현장에 전국에서 출동한 사랑의 밥차들이 수해 복구에 나선 장병 등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책임진다.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사랑의 밥차 운영을 지원하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22일부터 25일까지 도왔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새마을부녀회, 마을봉사단 등 11개 단체봉사자 3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봉사자를 투입할 예정이다.

김동엽 경주센터장은 "수해복구를 위해 힘써준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하고 하루 빨리 자매도시 익산시가 수해복구가 이뤄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자매도시 경주를 비롯해 부산, 전주, 전북도 등 각지에서 도움이 큰 힘이 됨을 감사드린다"며 "민·관·군 협력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자들에 대한 예우·감사 환기 위해 마련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예의 전당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내준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산 소재 기업체 대표들과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기부 릴레이가 이어지며 군산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는 16명의 고액기부자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전원의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 '군산소개-고향사랑기부제' 메뉴에서 명예의 전당을 비롯한 제도 소개, 군산시 답례품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소식 페이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의 마지막 당첨자인 1,000번째 기부자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기부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마음의 고향 군산시에 보내주시는 소중한 뜻을 명예의 전당에 새겨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매력적인 답례품 추가 선정을 통해 기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또 다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의 결과를 8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여름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군산시는 지난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송동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와 군산경찰서, 군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으로 진행했다.

합동점검단은 음식점과 편의점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철저함을 홍보했다.

또한 변화가 주면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 활동을 병행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장영호 여성가족청소년 과장은 "꾸준한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업주와 시민의 자발적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단장 김동권), 삼동청소년회, 군산시화(단장 박은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개소가 활동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중국관광객, 체류형 익산관광 가능성을 증명하다

중국 관광객 2박3일 일정 익산 대표 관광지 단체관광 · 특수목적관광(SM) 1300여명 익산 투어

익산시는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체류형 익산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증명했다.

중국 청소년과 가족 130명이 한중 문화체육 교류 및 관광을 목적으로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미륵사지 등을 비롯한 익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중국 특수목적관광(SM) 관계자 팸투어 운영 후 실제 중국 현지 관광상품으로 이어진 결과다.

이번에 익산을 방문하는 중국 특수목적관광객은 26일 오후에 익산에 도착하여 고스라 등 익산의 핫플레이스를 관람하고 교류행사에 참가한다.

교류행사 이후 익산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태권도 교류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익산에서의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틀간 숙박을 통해 체류관광지로서의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오전에 왕궁리유적지 등 익산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이후 서울로 이동하여 다음 날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중국 특수목적관광객 교류행사는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포문을 여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김세만 대표이사는 "보석의 도시 익산의 아름다움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국 관광객이 익산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익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시장을 개척하겠다"며 "한류 관광 시대를 겨냥해 '2023 익산시 방문의 해' 성공과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중국 관광객 2박3일 일정 익산 대표 관광지 단체관광 · 특수목적관광(SM) 1300여명 익산 투어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해설사' 위촉식

'군산문화재야행' 행사 기간동안 군산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직접 문화재를 해설하기 위한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 위촉식이 열렸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성과정을 이수한 우리지역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군산문화재야행 문화재 해설사' 20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는 군산문화재야행(8.10~8.12) 기간동안 문화재 해설사가 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아이들의 시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재의 의

미와 가치를 되새겨 우리 문화재를 알차게 지켜나가는 뜻깊은 활동이다.

어린이 문화재 해설은 오는 8월 10일 ~ 12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구)군산세관관, 구)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문화재 해설사로서 역할을 맡음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서동유아생태놀이터 물놀이시설 개장

익산시는 금마면 서동생태관광지 내에 유아생태놀이터를 27일 개장해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놀이조합대, 분수시설, 워터드림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물놀이시설은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루 3회 90분간 (10:30, 13:30, 15:30)운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회 50명이 이용가능하다.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1주일 단위 예약접수 방법으로 운영된다.

정현을 시장은 "워라벨을 누리는 생태친화 명품도시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여름철 횡집 등 위생 안전관리 강화

군산시는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팀 발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비닷가 주변 횡집 업소 등을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광주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업소는 관내 비응항,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횡집,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산물 위생적 취급, 보관 유통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관리, 비브리오팀균 오염 방지를 위한 수족관 온도관리(15°C이하) 및 수족관물 현장 채취 및 신속검사 차량을 이용한 비브리오팀 검사 실시 등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 조치 시행할 수 있으며, 부적합 수산물은 회수·폐기할 예정이고 원인 조사를 진행한 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